

# 신투리 지구 설계경기 심사 참가기

An Application Account of Design Competition  
for Shinturi District

金仁喆/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by Kim, In-Cheurl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로부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참으로 난감하였다. 스스로 생각하여도 아직 남의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였고 나의 일만 하기에 시간도 모자랄 지경으로 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담당자는 새로이 적용된 설계경기 규정에 의하여 모시는 것이라 한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동안 건미준의 일로 행쇄위와 건설부를 드나들며 설계경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던 전력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심사라고는 얼마전 부산에서의 학생전에 참여한 것이 유일한 경력으로 주변의 동료들에게서 심사경험담을 듣는 것이 그간의 나의 입장이었다. 우물쭈물하는 것을 겸손한 긍정으로 알아들었는지 그쪽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심사위원의 명단이 사전 공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보를 끝내었다. 어정쩡하게 심사위원이 된 것이다.

들려준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보았다. 신투리의 아파트설계, 열한명의 심사위원, 그중 네 명의 설계전문가(?), 올해 사월초 시행공고, 팔십여곳이 등록, 오월하순 마감, A지구 열 넷, B지구 일곱 작품 접수, 접수마감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유월 열이튿날 심사, 심사일 사흘전에 설계도와 설명서 배부 등이 그 내용이였다. 올해 이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우선 꺼림직하였다. 「과반수이상의 설계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라는 항목과 「시행공고시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라는 점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첫술에 배부르랴 하신 조상님 말씀에 기대어 나중에 다시 강조하기로 하고 마음을 정하였다. 한번 하여보기로.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것이다.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의 경험뿐 단지 규모의 설계를 진행하여 본 일이 없는 나로서는 역시 무리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걱정을 주변의 몇 동료들이 덜어 주었다. 내과의사가 외과수술을 하는 정도는 아니며 기왕의 심사위원 구성방식들이 설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그보다는 진전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용기를 내어 부딪혀 보기로 하였다. 발주자가 걱정하던 예상에 맞추듯이 그동안 왕래가 뜸하였던 곳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평소에 안면을 익힌 경우에는 직접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여 왔다. 난처하게 되었다.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는 한마디로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같이 고민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어느날 갑자기 불려와서 투시도만 들여다보고 체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답사하고 프로젝트의 성격을 설정하고, 나름대로의 충분한 공부를 한 뒤 패널앞에 서야만 설계자와 심사자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뒤야야 결과에 대하여 심사자는 떳떳히 평가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단」이라는 익명성속에 자신의 의사를 물어버리는 것은 비겁한 권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가 발표되면 항상 잡음이 따르게 되는 이유가 비공개와 폐쇄적인 관행때문임이 분명하였다. 심사위원의 명단이 미리 발표됨으로써 경기의 성격과 결과를 응모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어중간한 시점에 명단이 공개 되었으므로 심사자나 응모자 모두 당황하게 된 것 같다. 응모자는 공개된 명단을 앞에 놓고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암암리에 입수된 명단이라면 스스로 판단하여 처신할 것이지만 공개된 경우 경쟁자들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나도 움직여야겠다는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다. 심사자의 경우 또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만날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되었다. 피곤한 숨바꼭질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헤어나는 방법중 정면돌파하는 것도 그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청한다면 만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오히려 모자라는 공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결국 여러 응모자가 다녀갔다. 그들의 설명을 모두 들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격도 규명되었으며, 문제점도 파악되었고 나름대로의 그림도 만들어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다행스럽게도 무엇인가를 들고 찾아온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므로 모두 정상적인(?) 만남이 되었다. 오히려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갖지 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으며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새로운 동료들 만나게 되는 경우도 되었다. 하루는 시간을 내어 양천구의 꼬트머리에 있는 현장을 다녀왔다. 목동단지가 개발될 때에 함께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남북에 훌륭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는 대지의 조건이었다. 유월 열이틀, 오전 열시에 심사가 시작되었다. 참석한 심사위원은 열사람으로 임창복교수는 오후에 도착한다는 전갈이 있었다. 김성우, 김진균, 양동양, 유희준 교수와 김기철, 김춘웅, 최영집 소장, 주공의 정인환선생, 도개공의 변영진이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우선 심의를 진행할 위원장으로 최연장자인 유희준 교수를 뽑았다.

도개공 사장의 인사말과 담당 부장의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변영진이라는 새로운 설계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심사인 만큼 최선을 부탁한다는 발주자의 당부를 전하였다.

심사장으로 오면서 단단히 마음먹었던 결심이 예비심사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들은 바에 의하면 대개의 심사는 우선 토론없이 탈락작을 선정하여 수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심사편의 위주의 방법을 응모자 중심의 방식으로 바꾸어 진행하지는 주장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A지구의 열넷 응모작 중 여섯에서 범규위반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의 처리를 먼저 결정하여야 되었다. 힘들여 만들어진 안을 내용조차 거론하지 않고 추려낸다는 것이 응모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도 어긋나는 실례라고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지켜야 될 규칙을 실수이거나 고의이거나 관계없이 지키지 못한 것은 반칙임이 마땅하였다.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흥미로운 것은 무조건 탈락을 현업쪽에서 주장한 반면에 정정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검토하자는 의견을 학교쪽에서 요구한 것이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하여 대체적인 윤곽은 잡혀있었으나 결격사항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매우 곤란한 지경이 되었다. 수정을 전제로 하는 심사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와 작품성이 있다면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 간 끝에 일차심사의 표결로 탈락작품을 결정하게 되었다.

105, 107, 108, 109, 110, 114 여섯작품이 탈락되었다. 모두 범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서 결국 예비심사의 결과가 반영된 셈이었다. 다음 단계부터 각 작품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다.

101은 도로축에 선형을 배치하고 공원축에 탐형을 놓은 것이다. 공원을 향하여는 열려있으나 도로의 경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강서로축의 시설녹지에 보행자 출입구를 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102의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그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었다. 장소에 대한 해석적인 접근없이 단순하고 정연한 어법은 관찰자의 흥미를 끌어내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103의 굵은 선형은 가로경관의 변화와 개방된 내부공간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여 호감을 갖게 하였으나 동의 길이가 긴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시설부분을 입구의 주동에 묶어 주상복합형식을 제안한 것이 특징으로 평가되었다. 104는 우연히도 101과 흡사한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선형의 배치가 좀 더 조직적인 것으로 보였다. 106은 중복도형식의 탐형을 가로에 직교시킨 것으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었다. 아쉬운 점은 변화감없는 경직된 느낌이었다. 111의 경우는 102와 비슷한 것으로 보였다. 결정적인 단점은 지침에 미달하는 계획수수이었다. 112의 배치계획은 가로부분을 보행자에게 제공하고 차량동선을 내부로 깊이 끌어들여 처리한 것과 탐형에 선형을 합하여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제안을 한 것이었다. 과감한 시도에 반비례하여 미처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113은 가운데 켜에 탐형을 놓아 공간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으로 평가되었으나 탐형의 평면구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114의 배치계획은

높이의 변화만 있을 뿐 단지를 가득 채운 프레임으로 인한 폐쇄적인 형태로 도시와 환경에 대한 무표정이 특징이었다. 각 작품에 대한 심사자들의 의견이 토로된 뒤 입상후보작을 고르는 표결을 하였다. 골라진 것은 103, 104, 106, 112, 113의 다섯 작품, 다시 작품평가에 들어갔다. 103은 보행자전용의 물이 장점으로 부각되었으나 주상복합부분의 기능적인 면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104는 진입부의 중심성과 개방감에는 동의하였으나 도로에 나란한 얼굴과 내부도로의 지루함이 문제였다. 106의 절제된 정돈과 가로에의 개방감은 큰 장점이기도 하였으나 중복도형의 단점과 서향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약점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다. 112 역시 개념의 명확함에 반하여 동선의 길이, 보이드부분의 공간감, 후면에 배치된 메스의 이질감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113의 경우 세계의 켜로 이루어진 구성에도 불구하고 단순명료한 표정을 만든 것과 소규모 평형에서 소홀히하기 쉬운 평면과 입면을 섬세하게 다룬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입상작 내점을 선정하기 위한 삼차표결을 종다수를 원칙으로 하여 상위 두 작품을 당선작과 우수작 후보로, 다음 두 작품을 입선작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결은 1, 2, 3위만 골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득이 표를 얻지 못한 106과 112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한 결과 106이 선택되었다. 두 작품 모두 새로운 제안이었으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론이 좌우 되었다. 입선작으로 정하여진 104와 106을 치위두고 당선작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토론이 시작되었다. 103은 보행자 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개방감이 장점이었으며, 113은 질서를 이룬 공간의 균제감이 장점이었다. 선형의 편복도와 탐형의 중복도 형식에 대한 평가, 도시와 자연에 대한 조화 등이 따져지는 도중 불상사가 일어났다. 103의 주상복합형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서 도로중심으로부터의 법적 이격 거리가 문제된 것이다.

명기된 치수가 도면의 실제의 값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도면을 살펴본 결과 배치에서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고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궁여지책으로 기입된 치수인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상처를 입은 격이 되었다.

업무관계로 오후에는 불참한 주공의 정인환위원 대신 임창복교수가 합류한 열명의 심사위원이 결선투표를 한 결과 일곱 대 셋의 차이로 113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한숨을 돌린 뒤 곧이어 B지구의 심사가 계속되었다.

A지구의 두개단지 1,700여세대에 비하여 단일단지 900여세대의 규모이고 응모작의 수도 일곱이었으므로 쉬운 작업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다행히 예비심사를 모두 무사히 통과하였으므로 이번은 처음부터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다. A지구와는 도로를 사이에 둔 비끼선 건너편으로 남쪽에 공원을 품고 있는 조건이었다. 해결의 요점은 도로와 공원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은 대지의 레벨 차이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인듯 세계의 중정으로 나뉘어진 형태가 되어 주변과의 융합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202는 중앙을 개방하여 도로로부터

○ 작품 등록 현황

A지구(1,5단지)			B지구(4단지)		
101	신조	오웅석	201	일우·성	선동익
102	동도·명신	이문기	202	담	맹춘호
103	서울	엄웅	203	청목	김창배
104	건원	곽홍길	204	꾸메·우림	유난형
105	반	김용철	205	영지·성보·송현	박춘근
106	한진	진영훈	206	신한	최경일
107	예전	김상경	207	금성	한종언
108	선한	김진구			
109	대연	김정원			
110	삼우공	정용찬			
111	토문	최수호			
112	영풍·명	박명화			
113	동인·우영	윤태웅			
114	옥산·평	이강욱			

공원에 이르는 축을 만들고 아래와 위에 중정을 갖는 두개의 구역을 설정하였다. 203의 배치계획은 레벨의 변화를 더욱 세분화하여 넷으로 나누어 풀었는데, 작은 단위의 중복으로 인하여 전체를 연결하는 흐름이 흐트러져 있었다. 204의 단지 내 공간확보는 대담하게 시도되었고 탐형의 변형된 평면은 성공적이나 편복도의 선형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205는 선형과 탐형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남쪽의 공원을 열어놓아 공간을 확장시켰으며, 차량의 동선을 깊이 끌어들이므로써 전면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탐형에서 북향은 계속 숙제로 남게 되었다. 206의 프리젠테이션은 지극히 세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용의 단순함이 곧 드러나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반대의 경우로 어설픈 표정을 하고 있는 207은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경우이었으나, 가로에 비스듬이 비껴선 모양과 공원을 향하여 옆으로 접근하는 압력이 흥미를 끌게하였다. 요점 정리를 끝내고 일차 표결로 후보작을 선택하였다. 202, 204, 205, 206의 네작품이 선정되었다. 207이 과반수에서 한표가 미달되었으므로 재고를 요청하고 다시 살펴보았으나 주차장 일색으로 내부 공간이 채워졌으며, 지침의 요구사항에 충실치 못한 점이 지적되어 결국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반복된 작품평가에서 202와 206의 공원에 대한 배려, 가로에 대한 대응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04와 205의 탐형 평면형식이 집중, 검토되었는데, 204의 변형된 형식과 205의 정통적 형식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노출시켰다. 입선작 세점을 뽑는 표결에서 206이 탈락되어 3등에 202가 입선작으로 결정되었다. 아홉표의 205와 열표의 204를 다시 비교한 결과 204의 경우 선형에서는 동선의 무리함, 탐형에서는 인동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지적되었고, 205의 탐형에서도 복도의 어색함과 함께 북향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마지막 선택을 위한 표결은 다섯 대 다섯이

되어 순위를 정하지 못할 만큼 백중세이었다. 모형을 가운데에 두고 이번에는 장점찾기에 나섰다. 204는 내부공간의 개방감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가로와 공원에 탐형의 스크린을 설치한 내향성이 특징이며, 205 또한 같은 개념이나 가로와 공원이 투명하게 열린 대신 내부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는 외향성이 장점으로 읽혀졌다.

다시 투표한 결과 여섯과 넷의 차이로 205가 당선작이 되었다. 오후 다섯시, 일곱시간의 크리틱과 표결의 반복끝에 두개의 당선작을 골라내었다.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여 기록되게 하였다. 심사과정과 결과는 건축잡지에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입선작에 대한 심사위원 각자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응모자의 실명이 개봉되었을때 모두 담담할 수 있었으며, 가쁜 마음으로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입선이상의 응모자에게 상당한 상금이 지급되는 것도 드물었던 경우이어서 앞으로의 설계경기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설계경기가 진정한 의미의 건축축제가 되기 위하여는 계속적인 제도의 보완과 시행방법의 연구가 있어야 겠지만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여 보였다.

설계경기라면 으레히 두드러기가 돋았던 지난날의 경험을 잊고 이제부터라도 참가하여 볼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번 설계경기에서 골라진 계획안들은 보편타당성보다 독창성에 의미를 준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정관념에 대한 의문의 제기,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 등에 모두 관심을 보였다. 종래의 진부함을 답습하거나 어디에 세워도 좋을 것같은 기능의 합리적 해법과 법적 기준의 해석만으로 풀어진 것은 관심의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우리의 현대건축이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양을 생산해 내고 있음에도 감동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위주의 사고방식과 모험을 주저하는 보수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연습을 한 이제는 과감한 시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배경과 조건이 성숙되었음을 감지하고 한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당선작이 완벽하였기 때문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건축을 하는 동료로서 당선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개될 설계와 공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집념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저개발국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을 보며 느낀 것은 건축의 결과는 결코 건축주와 시공자의 탓으로 돌려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책임은 오로지 건축가에만 있는 것이다.

※ 이 글에 표현된 작품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한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해가 부족하였거나, 편견에 치우친 것일 수도 있다. 잘못과 오해가 지적된다면 공개적인 토론이 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